손명수 2차관, “육운산업은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

- 18일 육운의 날 기념식 참석…기술서비스 혁신 통해 미래 선도 강조 -

□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11월 18일 16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육운의 날***에 참석하여 **육운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고종황제 자동차 시승일(1903.11.14.)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1987년부터 매년 행사 개최

□ **손명수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운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면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육운**업계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아울러, 육운산업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그 미래로 **먼저 가는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 “**육운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의 시작이자 핵심” 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운산업 발전을 인정받아 금탑산업 훈장, 포장 등 총 12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였으며,

○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 117만 명**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육운서비스 제공**, **선진교통문화 정착,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이행** 등에 대한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2020. 11. 18.

국토교통부 대변인

《 결 의 문 》

오늘 제34회 육운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은 육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의 도약과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운인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2020년 11월 18일

전국 육운산업 종사자 일동